

# 개미처럼 일하는 배짱이 개발자 우지원입니다

## About me



우지원  
JIWON WOO  
禹智元

woojw6012@naver.com

010-2902-316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17, 현진에버빌  
103동 401호

## Education

- 한성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2020~ 재학중  
( 24년 졸업 예정 )

## Experience

- 주식회사 비아엘 2023.03~
- 매머드커피 2021.12~2022.06
- 에스티엔 네트워크 2020.07~2021.11

- 해비치 호텔 & 리조트 2015.03~2016.12

## Language

- 일본어
- 

## Skills

- JAVA
  - Javascript
  - Spring Framework
  - Spring Boot
  - VUE.JS
  - Nexacro
  - EGOV
  - MySQL
  - Oracle
- 

## Experience



**2021.06~2021.12**

### **KG 아이티뱅크 JAVA 기반 백엔드 개발자 양성 과정**

- JAVA, JSP, SPRING을 통한 웹어플리케이션 개발 공부
- AWS, Spring Security의 경험



2023.03~현재

주식회사 비아엘

- EGOV와 NEXACRO를 사용한 화면 구성 및 API 개발
- VUE.JS와 Spring Boot를 사용한 홈페이지 개발

## Project

### 01. B:EDU 홈페이지 개발

기간 : 2023.04~현재

기술 스택 : Vue.js, Spring boot, MySQL

개발 내용 :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프로젝트의 목업뿐만 아니라 DB의 구상 및 설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의 개발이 시작된 후에는 강의 페이지와 동영상 시청 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동영상, 카테고리, 강의 등의 CRUD를 하는 페이지를 담당했습니다.

Vue를 사용하여 화면을 개발하고 Spring boot를 사용하여 rest api를 개발했습니다. 처음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직접 부딪쳐가며 배우고 구현해내는 과정은 백엔드 개발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의 기획, DB 설계를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Vue.js를 사용하며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고충을 일부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협업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02. Trip Together

기간 : 2022.10~11

기술 스택 : Spring legacy, MySQL

## 개발 내용 :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팀프로젝트입니다.

저는 크게 세가지 기능의 구현을 담당했습니다.

1. Spring Security 구현
2. 회원페이지 구현
3. AWS를 사용하여 서버, 스토리지 구축

Spring Security를 통해서는 사용자 권한별로 페이지 접근을 제어하고 중복 로그인을 방지하는 기능을 중점에 두고 개발했습니다.

회원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회원가입 등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비밀번호의 암호화를 고려하여 개발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AWS에서는 EC2, S3, RDS를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보다 가벼운 운영체제인 리눅스에 서버를 배포하였고 RDS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S3에서는 임시 데이터와 저장 데이터를 구분하여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AWS의 접목과 Spring Security의 구현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밤샘으로 찾아서 공부하고 성공적으로 구현했을 때에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기능의 구현도 기술적 성장이었지만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보다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

# I am...

## 01.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저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의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협업툴의 특성상 하나의 SNS적인 기능도 동반하게 되어있고 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오고가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더 나아가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팀원들과 연구하고 고민하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드라스체크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무는 저같은 신입/초급 개발자가 담당하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업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드라스체크에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검증하여 꼭 해보고 싶은 업무입니다.

물론 중요한 만큼 상당한 리스크를 지는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잘하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고이게 만들뿐입니다.

## 02. 회사가 커야 콩고물도 떨어진다

저는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 중에서는 회사의 성장에 보다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해야 직원들도 배움과 경험의 기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장도 물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 없이 개인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성장의 벽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는 회사에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와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직원들에게 새로운 그리고 더 큰 경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03. 나를 울렸던 작은 아이의 편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찼던 일은 과거에 고아원 봉사를 다녔던 일입니다. 저는 약 2년간 고아원 봉사를 다닌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한 장소에 모여서 생활하는 환경에서도 서열이 존재하고 왕따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발달장애로 인해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자꾸만 눈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챙겨주게 되었고 2년간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군입대로 인해 마지막 봉사를 갔고 그날 그 아이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미안하고 마음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때에 제일 느꼈던것은 최소한 내가 있는 집단에서 만큼은 소외받는 사람이 없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하면서 중요한 것중 하나는 팀워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서투르고 타인과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팀과 화합하게 만들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팀원의 업무라 생각합니다.

업무 환경은 팀워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동료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04. 새로운 도전? 오히려 좋아! 가보자고!

저는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쿠처럼 빠져드는 기질이 있었고 저는 새로운 것을 즐기고 경험하는데에 그러한 기질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서비스업에서 일했던 5년 동안에도 음료와 주류에 관심이 생겨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껴 대학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관심은 개발이라는 직업에 달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취업하여 팀원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를 거쳐가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원에서는 Spring Security, AWS 기능을 학습한적도 없이 구현해야만 했습니다. 배운적 없는 기술에 대해 구현해야한다는 부담감은 컸지만 그래도 해내야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발적 야근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이를 발표할때에는 형용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성취감은 개발자를 향한 꿈을 더욱 크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에서는 vue, nexacro 등의 프레임워크, 툴을 사용해야만 했고 팀원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해결해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 난관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곧 경험이고 미래의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성장중인 IT업계에서 변화에 따라가고 때로는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는 사원이 되어 도움이 될것입니다.

## 05. 비전공자라서 힘들다고? 비전공자라서 더 좋다고!

저는 서비스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직에서만 5년을 일하고 나서 개발자라는 직업을 얻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취업을 준비하면서 면접자리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비전공자인데 왜 이직했나?” 입니다. 처음 들었을때에는 주눅들고 위축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어리고 경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개발자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개발자야말로 커뮤니티 능력을 매우 필요로하는 직군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업무만 잘 해낸다고 개발자의 일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발자는 팀원들과 끝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좀 더 나은 방안을 의논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에서도 커뮤니티 능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업무 속도가 더딘 팀원, 비협조적인 팀원으로 인해 업무 분위기가 흐려지고 결국 PL도 분을 참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대로 두는 것도, PL이 화를 내는 상황이 되는것도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원과의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팀에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먼저 무엇이 안되는지 물어보고 도와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팀원의 업무 속도가 따라붙지는 못했지만 비협조적이었던 초기의 태도와는 다르게 마지막에는 최대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 팀원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발자에게 커뮤니티 능력은 개발하는 실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마드라스체크와 같은 벤처기업에서는 저의 이러한 능력이 더욱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6. 입사 후 나는?

저는 입사후에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노력할 것입니다.

첫번째로는 입사 후에는 마드라스체크의 업무 환경에 대해 먼저 적응하고 팀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디서나 업무 분위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드라스체크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개발은 단순히 혼자서 개발하는것이 아니고 팀원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다른 팀과의 협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게 된다면 결국 했던 업무를 반복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일을 하게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발령되는 팀의 소스코드를 분석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되어있고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새로운 코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봐야하는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어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둬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드를 쓰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만큼이나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제가 업무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숙련하는데에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업무 분위기, 프로세스, 기존 업무의 이해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결국에는 주어진 업무를 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앞선 나머지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속 빈 강정이 될 뿐입니다.

저는 스스로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고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 위의 순서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배울 것 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이지만 이를 순서를 매기고 인식하고 하는 것과 그냥 손에 잡히는대로 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07.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이 말은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존 데이비스 록펠러가 했던 말입니다. 어렸을적 저의 멘토에게서 배웠던 두가지중 한가지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얘기에 경청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의 성격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결국 서비스직을 지나 개발자가 되기까지 소통 능력을 기르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발자는 많은 사람들과 수시로 소통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의 바탕이 되는 경청은 업무에서도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